

전통문화를 갖지 못한 민족은 미래 민족으로 멸시 받는다. 민족의 긍지는 전통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그 문화를 얼마나 화려하게 진흥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에는 수 많은 민족이 있고 그들은 각기 특징이 있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정신이며 민족의 생명이다. 그 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생명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갖가지 많은 문화들 중에서 성보문화는 더욱더 중요하다. 정신의 뿌리요 생명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성보문화 송광사에서 성보문화재가 또 도난을 당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민족의 문화재며 만민의 의지적인 성보문화재를 훔쳐간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화

재의 도난이나 도둑이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관리책임마저도 확실하지는 사람이 없다. 민족문화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는 무책임하고 있으며, 자기 신앙의 재산인 성보문화재를 도둑맞고도 속수무책인 종단과 사찰관리자들은 허수아비인가. 조상의 문화재를 훔쳐 팔아 먹으려는 국민은 과연 문화의식

민족 조상의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서 는 절대로 안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이 중요해져도 하더라도 전통문화를 보존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국가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할 것이다. 차제에 대학에 전통문화재학과라도 만들어 성스러운 민족문화재 보존·전승토록 하고, 문화

한 정책과 의식부족을 질실히 느끼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성보문화재의 도난과 화재는 분명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진 종교와 종단이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철저하다면, 종교자체의 교육은 물론이요,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조와 의식 전환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요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서 개인의 신심이 부처님에 든 하나님에 든 우리 민족은 같은 뿌리의 한 민족임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문화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재가 각광을 받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증거이다. 각종 교육계와 언론에서도 민족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교육과 계몽이 앞서야 한국문화가 세계화되고, 세계화된 한국인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사설

성보보존, 정부·종단 공동책임

이 있는 후손인가. 차제에 다같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먼저 정부의 관계부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 전통문화재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구가 어렵다. 개인의 종교가 다르다 해서

재 보호에 특별한 조치를 하여 귀중한 민족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 성보문화재의 직접 소유권자인 사찰과 종단에서는 도난에 대한 통단만 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관리 책임과 성보문화재의 가치인식에 대

열린 마당

성보도난

선사들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절도범들에게 도난당한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종단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찰과 송광사에 있음을 통감한다. 이번 도난사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구성, 종단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더 이상 성보가 도난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재 관련기관 또한 '문화재 사범 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는 행정기관에게는 이례



김현식

문화재사범 진담반 구성 시급

적으로 사범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미비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중앙차원의 문화재 사범 진담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로인해 문화재 도난사건 발

생시 현지 관할 경찰서의 조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의 결여, 정보의 부족, 공조수사체계의 허점 등으로 사건 해결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문화재관리를 사찰에 위임할 뜻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광사 송광사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국사전에 도둑이 들었는 사실은 불교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충격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장중식 교수

전문위원 확보 관리체계 구축

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종단이 상호 협력하는 성보문화재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종단이 관리의 불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불교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이다. 새롭게 출범한 종단은

하루빨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성보문화재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또 본사별로 박물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전문위원을 배치, 관리, 연구, 보존을 맡겨야 할 것이다. 이

공공계에도 이번 대재난을 겪은 나라들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두 절단을 달리는 선진국들이다. 이렇듯 선진국을 내딛는 국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이 자연의 이변. 이것은 분명 그동안 거만했던 우리 인간들의 오만을 심판하는 자연의 시국에 불과하다. 그렇듯 환경보호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작업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우림의 황폐화를 비롯한 수만 자연환경의 훼손.

자연재해가 주는 교훈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이지만 점성가들이 보는 올해의 운세는 그리 순탄치 않다. 그들은 올해가 주로 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대 격변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점쳤다. 이탈리아의 대홍수, 미국의 지진, 각종 유명인들의 스캔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이변이다.

일찍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렇듯 우려했던 기묘모호한 재난들이 예측을 불허하며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바뀌기 무섭게 일본에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몇배 더한 지진이 일어나 한 도시를 잿더미화 시켰고, 이에 대한 세계의 근심스런 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 네덜란드의 경우 나라 전체가 바다로 변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난은 유럽은 물론 북미 남미까지 퍼져 한겨울에 눈이 내린 물난리를 겪게 하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경우엔 영호남 지방이 홍수 대신 몇달째 가뭄이 들 어 대지가 마르고 땅이 갈라 식수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촌 곳곳마다 발생하는 이 거대한 재난에 아무리 철단을 달리는 선진국일지라도 속수 무책이다.

공공계에도 이번 대재난을 겪은 나라들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두 절단을 달리는 선진국들이다. 이렇듯 선진국을 내딛는 국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이 자연의 이변. 이것은 분명 그동안 거만했던 우리 인간들의 오만을 심판하는 자연의 시국에 불과하다. 그렇듯 환경보호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작업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우림의 황폐화를 비롯한 수만 자연환경의 훼손.

화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지 모른다. 이제 열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연 뿐이다. 자연만이 인위적인 것을 넘어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를 향해 설교한 노자의 말이다.

환경과피 서로 경계

자연은 다름아닌 도(道)의 존재양식이다. 그래서 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돌아가야 할 그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를 삼키고자 말겠다는 분노의 여신으로 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원래 있던 그대로 잘 보호하고 있었으면 됐을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일관한 지혜로 만물의 영정임을 과시하면서 자연을 희롱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이 성이 날 수밖에 없다.

만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따라서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다. 범구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허풍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며, 머구나 산속의 바위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땅 위에서는 죽음을 받지 않고는 어딜가도 벗어날 곳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결코 그 재난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였다. 고대 시민들의 침착함과 네덜란드인들의 방비책이 그것이다. 이들은 옛부터 늘상 자연의 위협을 받으며 그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익힌 예중들이다.

일본의 경우, 항시 따르는 바람과 비 그리고 지진의 피해로 인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어느곳 보 다도 많은 신을 믿고 있는 는 나라가 일본이다. 신을



윤광봉 (대전대 교수)

믿지 않고는 그 거대한 자연의 힘포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앞에 그들은 늘 겸손하고 경건했다. 이것은 자연이 갖다준 나름대로의 지혜가 되었다. 그래서 웅만한 재난에도 결코 그들은 불리거나 굴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바닷물이 넘칠 것을 예견하며 자연의 위협에 대비해 오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방비에 익숙해진 것이다.

이로 볼 때 역시 자연에 대해선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고 그들을 두려워 할 줄 알며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깨달은 진리였다. 천지 대자연은 원래 무자비한 존재이다. 거기에는 정도 중요도 없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도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더 겸허해야 한다. 아무리 하늘 악마, 신같은 무서운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극복하여 도를 얻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땅덩 말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새삼 되 새기며 우리 모두 좀더 겸허하자. 그리하여 환경과피에 대해 서로 경계하며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

문화재는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6천6백43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30.6%에 이르는 2천393건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도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문화



김진우 국장

유물전시관 건립등 지원할터

유물전시관 건립등의 자금 지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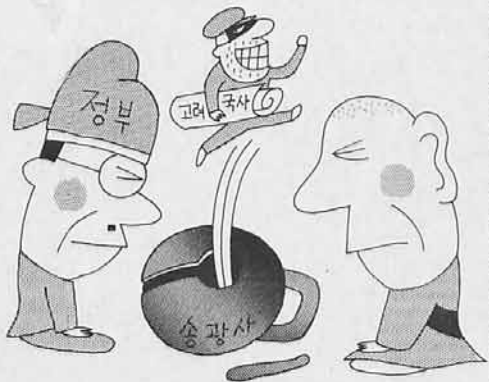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때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직지사 송광사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 및 확장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물전시관 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공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위탁 보관토록 권장하고, 문화재 보관시설에는 CCTV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도난에 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국)

관 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공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위탁 보관토록 권장하고, 문화재 보관시설에는 CCTV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도난에 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국)

현대만평

박구원



구명난 보안

현대불교를 법공양합시다 구독신청 737-8881

3월 1일, 불교텔레비전개국

“불교영상 21세기, 우리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문의전화 3270-3471~4



사진제공·대중불교

불교영상에도 이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불교를 알고 영상을 아는 사람들, 바로 불교TV 영상사업부 사람들입니다. 불교영상의 모든 것, 저희들과 의논해 주십시오.



프로모션사업을 도와드립니다.

- 교계 문화·예술관련 이벤트 행사 기획
- 불교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

프로그램을 제작해 드립니다.

- 사찰·포교당 홍보 VIDEO 제작
- 교계 기념일 범오식·법회등 기록영상 제작
- 교계 기업 광고·홍보영화 제작
-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 교계 뉴스제작 (불교텔레비전 방송용/교계 홍보용)
- 각종 기획 영상을 제작·공급



서울·이포구 마포동 418 전화: 3270-3300 팩스: 3270-3498